

남원시-지역 작가 로컬브랜드 협업

남원다운 디자인 가치 협업 협약... '남원종합상사' 패키지 상품 제작 웰컴기프트 상품 시리즈 1·2·3호 디자인, 조현동·김민화 화가 참여

남원시농촌진흥협력플러스추진단이 지원하는 로컬편집숍 '남원종합상사'의 패키지상품이 지역 예술작가들의 디자인패키지로 거듭나며 상품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추진단이 로컬브랜드기업 상품의 판매촉진을 지원코자 '남원종합상사' 패키지 상품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다며 남원다운 디자인으로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최근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추진단에서 제작하는 남원 '웰컴기프트' 상품 시리즈에 지역 작가들의 손길로 로컬의 가치가 담긴 고품격 상품을 제작함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웰컴기프트 상품 시리즈 1, 2, 3호 디자인에는 남원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자 조현동 씨와 동양화가자 김민화 씨가 참여해 남원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 시리즈 상품들은 지역 소기업이 생산하는 최

상의 상품을 컬래버한 것으로 1호는 '남원의 맑은 술' 3개 업체, 2호는 '남원의 김부각' 7개 업체, 3호는 '남원의 커피와 추어탕' 2개 업체가 각각 참여했다.

남원종합상사는 소규모 지역 기업체들의 우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공동판매촉진 사업의 브랜드명이자 상설매장의 명칭으로 오는 6월10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만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을 통한 지속적이고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사업화함으로써 소멸위기가 닥친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공모' 협력

필수 교육-문화시설 등 설치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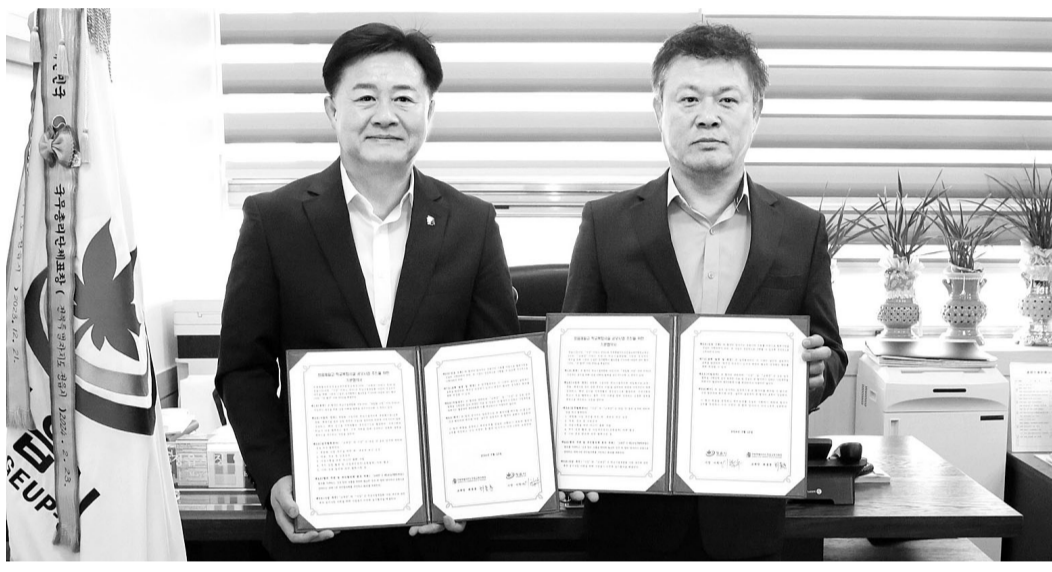
정읍시는 이학수 시장과 최용훈 교육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설치,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 내용은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부지 공동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교육지원청은 정읍제일고 부지를 시에 제공하게 된다.

이후 시와 교육지원청은 이곳에 주차장과 시민정원,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진학상담, 웹툰교육, 공연장 등



정읍시청에서 열린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학수(오른쪽) 정읍시장과 최용훈 정읍교육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정읍지역 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정읍을 떠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학교복합시설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숙지항 소비 촉진 프로모션 인기

20% 환급... 1700만원 조기 소진

정읍시가 지역 내 숙지항 사용 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숙지항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정읍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정읍의 특산물 '지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숙지항(20kg 단위) 구입비의 20%를 운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판매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업체가 참여해 사업비 1700만원이 조기 소진되는 등 참여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프로모션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정읍지항으로 만든 생화차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영체의 소득 증대와 고품격 정읍지항을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생화차의 주원료인 숙지항(왼쪽 아래).

고창 죽도, 연말엔 명품 관광지 변신

어촌뉴딜사업 올해 완공... 숙박·체험·교육시설 등 조성

고창군이 유일의 유인도인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서 진행 중인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완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최종심지인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갯벌 생태교육의 현장으로 집중 육성하고, 주민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고창군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국비 등 총사업비 91억원)' 관련, 고창갯벌 보호를 위해 일부 시행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내죽도는 주변 자연생태경관이 우수하지만, 마땅한 숙박시설과 회의장이 없어 관광객들이 스쳐 가면서 아쉬움이 컸다.

고창군은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한 탐사르생태학교에 단체관광객이 머물 숙박 시설과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장에서는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최최인 유네스코 7가지 보물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 중이다. 또 갯벌건강공원 원에는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캠핑사이드도(3면)를 만들어 서해 노을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갯벌체험과 낚시체험, 해안숲길탐방 체험 등 다



죽도항 어촌뉴딜사업 조감도

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해 어민소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눈앞에서 보고, 서해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서치근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낙후된 죽도항과 섬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해 서해안권 해안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ESG 코리아 어워즈' 지자체 대상

친환경차 보급·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등 호평



지난 24일 '2024년 제5회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전북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남원시의 이순택(왼쪽 세번째)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가 최근 열린 '2024년 제5회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전북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SG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SG 코리아 어워즈는 한스경제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주최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분야 106개 항목을 살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 또는 기업에게 상을 준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환경과 사회 행정분야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며 ESG 경영 모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펼치고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원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